

N E W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홀로 공부하는 수능

홀수 국어



국어북

기출



훈련도구

1

문 학



도서출판 홀수
Holsoo Publishers

홀수 해설은 친절하고 자세한 정·오답 풀이와 심화·보충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의 질문

- Q:** (가)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
아닌가요?
A: (가)에서 유사한 시구의 반복은 나타나지만, 평론이나 <
작품만으로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
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학생 수준에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판단할 수 있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Q&A 게시판에서 학생들이 많이 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애매한 내용이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틀잡기

- ① **명시적:**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풍자: 현실의 부정적 상황이나 모순 따위를 다른 사
빛대어 간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그에 대해 문제 의식
것. 대상에 대한 공격적 태도가 느껴짐.
⑤ **반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기틀잡기에는 문학 개념어 및 간략한 문제 접근법을 담은
수능 국어의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게 했으며, 이것만은
챙기자에는 해당 지문에서 꼭 챙겨가야 할 어휘를 풀이
하여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기 분석

- 「유씨삼대록」
- 각 이야기는 독립적 + 유씨 가문 내의 이야기라는 공통
연결
- 혼사 갈등의 원인: 가법, 인물의 성격
- 혼사 갈등의 해소: 가문 차원에서 구성원들이 관여하

<보기>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문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적 문제

학생들이 정답 이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지가 ⑤번이다. (가)
서 모두 반어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에서는 반어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았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화하는 표
시에서 반어적 어조는 주로 화자가 어떤 대상을 비판하거나
혹은 못마땅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가)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합니다. 정답이라고 착각
하기 쉬운 '매력적 오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수험생이
흔히 갖기 쉬운 사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평가원 이의 제기 & 답변

- Q:** ②번과 ④번이 적절하고, ①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
A: 윗글의 '내 자식이 무도하여~'에 나타나 있듯이, 나
게 과오를 범한 주체는 '승상'이 아니라 '승상의 자식
다. 따라서 ②번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만 리 청춘미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평가원 이의 제기와 그에 대한 답변을 수록하여, 평가원의
출제 의도와 그에 따른 접근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 영역 구성 살펴보기

[공통과목] 1~9권

영역	권	구성
문학	1권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2 2022학년도 예시문항 문학 분석
		PART 2 이상적인 지문 독해를 위한 훈련 1 현대시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2 현대산문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3 고전시가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4 고전산문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PART 3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 홀수 기출 분석 노트 활용법 (2021학년도 수능)
	2권	[현대시]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3권	[현대산문]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독서	4권	[고전시가]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5권	[고전산문]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6권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2 2022학년도 예시문항 독서 분석
		PART 2 이상적인 지문 독해를 위한 훈련 1 인문·예술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2 사회·문화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3 과학·기술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PART 3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 홀수 기출 분석 노트 활용법 (2021학년도 수능)
	7권	[인문·예술]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8권	[사회·문화]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9권	[과학·기술] 기출 분석 훈련 + 기출 분석 실전

*홀수 국어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세요.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구성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2 2022학년도 예시문항 화법과 작문 분석
PART 2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1 화법 핵심 개념 2 작문 핵심 개념
PART 3 새로운 수능 국어를 위한 기출 분석 훈련 1 기출 분석 노트 활용법 (2021학년도 수능) 2 3개년 평가원 기출 분석 훈련
[+ α] 개정 수능 국어 형식 모의고사 훈련 (홀수 제작 문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구성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2 2022학년도 예시문항 언어와 매체 분석
PART 2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1 언어 핵심 개념 2 매체 핵심 개념
PART 3 새로운 수능 국어를 위한 기출 분석 훈련 1 기출 분석 노트 활용법 (2021학년도 수능) 2 5개년 평가원 기출 분석 훈련 (언어)
[+ α] 개정 수능 국어 형식 모의고사 훈련 (홀수 제작 문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 언어와 매체는 3월 출시 예정입니다.

문학 1권 CONTENTS & PLAN

DAY	PAGE	PART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안내	학습 CHECK		
			1회	2회	3회
DAY 1	P. 14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	☐	☐
DAY 2	P. 19	2 2022학년도 예시문항 문학 분석	☐	☐	☐

DAY	PAGE	PART 2. 이상적인 지문 독해를 위한 훈련	학습 CHECK		
			1회	2회	3회
DAY 3	P. 56	1 현대시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2018학년도 수능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김광규, 「묘비명」 / 시에 반영된 현실과 시 자체	☐	☐	☐
	P. 64	2 현대산문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2016학년도 6월 모평A 김유정, 「봄 · 봄」	☐	☐	☐
DAY 4	P. 74	3 고전시가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2016학년도 9월 모평B 신계영, 「전원사시가」	☐	☐	☐
	P. 82	4 고전산문 지문을 이상적으로 읽는 훈련 2020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	☐

DAY	PAGE	PART 3.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훈련	학습 CHECK		
			1회	2회	3회
DAY 5	P. 98	1 2021학년도 수능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2 - 그 언덕」	☐	☐	☐
	P. 110	2 2021학년도 수능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	☐
DAY 6	P. 120	3 2021학년도 수능 정철, 「사미인곡」 / 신희, 「창 밖의 워낙버섯~」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
	P. 134	4 2021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최고운전」	☐	☐	☐
DAY 7	복습하기				

- 1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에 대해 알아보자.

공통과목 (문학 + 독서)

02 2022학년도 대입수능능력시험 예시문항 문제지

01 제1교시

03 출수형

04 국어 영역

05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6 2. (가)와 (나)는 모두 공작작의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07 3. (가)와 (나)는 모두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관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08 4.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적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09 5.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10 6.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나)에서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01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2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3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4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5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6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7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8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1 수능 국어는 1교시에 시행되고 총 80분 동안 시험을 봐.

0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전환했다. 그중 공통과목은 '문학'과 '독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지.

03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국어 시험지는 홀수형/짝수형으로 나누어 배포하는데, 이는 수험 번호에 따라 결정되고 수험생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어. 홀수형과 짝수형은 몇몇 문제의 선지 순서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같다고 보면 돼.

04 문항 번호 옆에 제시된 물음을 발문이라고 해.

05 ①번부터 ⑤번까지의 항목을 '선지(선택지)'라고 해. 수능 국어는 다섯 개의 선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오지 선다로 출제되지.

06 독서 영역은 총 3지문 17문항이고, 자문의 유형은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중에서 제시되는데, '인문 + 과학'과 같이 복합 영역으로 나오기도 해.

07 문학 영역은 현대시, 현대산문, 고전시각, 고전산문, 극·수필이 골고루 출제되는데, 총 4지문 17문항이야. 서로 다른 갈래를 엮어 하나의 자문으로 나오기도 해.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문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시험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출제되고, ‘공통과목 + 선택과목’의 구조로 구성돼. 공통과목 중 하나인 ‘문학’ 영역에서는 크게 ① 문학 개념어에 관한 지식, ② 작품을 중심으로 한 이해와 감상의 적절성 판단, ③ <보기>나 평론으로 제시된 다양한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 따라서 문학 개념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문으로 제시된 작품, <보기>나 평론의 내용, 선지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이때 2022학년도 예시문항은 특히 작품과 작품, 작품과 <보기> 간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규정한 특징에 중점을 둔 문제가 두드러지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어. 이를 포함하여 문학 영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2022학년도 예시문항과 기존 평가원 기출 문제 사이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자!

유형	이전 평가원 기출 문학	유형	2022학년도 개정 수능 문학 (예시문항 기준)
구성	총 4지문, 15문항	구성	총 4지문, 17문항
지문 형식	• 현대시, 현대산문, 고전시가, 고전산문, 극 · 수필이 고루 출제됨 ① 작품 단독 지문 또는 2~3개의 작품을 엮은 복합 지문으로 제시됨 ② 작품과 관련된 평론이나 문학 이론이 지문에 함께 제시됨	지문 형식	• 지문의 형식은 이전 기출의 ①, ②와 유사한 형식으로 제시되나 아래와 같은 변화가 나타남 – 역사적(문학사적) 맥락과 관련된 내용의 평론이 제시될 때 이와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평론의 글 속에 포함되어 제시되기도 함 (참고: 2022학년도 예시문항 22번~25번)
문제 형식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으로 ‘적절한 것’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일반적인 형식의 발문을 주로 활용함 ① 표현상/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② 작품을 중심으로 사실적 · 추론적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 ③ <보기>를 기준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 · 감상을 확인하는 문제	문제 형식	• 전반적으로는 이전 기출의 ①~③과 유사한 형식이 유지되나 아래의 내용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 ① 작품의 갈래적 특성이나 사회 · 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과 같은 외적 준거를 작품의 이해와 관련 시킴 (참고: 2022학년도 예시문항 4번, 24번, 25번) ② 작품이나 <보기>의 내용들 간 유기적 관련성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선지를 구성함 (참고: 2022학년도 예시문항 12번, 15번, 24번) ③ 발문에 특정 소재나 대상을 명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평가함 (참고: 2022학년도 예시문항 2번, 14번, 23번, 28번)

 위의 내용은 개정 수능 국어의 달라진 점을 파악하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후 시행되는 평가원 6월,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하여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예시문항 문학 문제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예시문항을 풀어보자.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통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 지문과 문제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을 거야. 이를 염두에 두면서 문학 영역의 문제 출제 유형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학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 먼저 새로운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예시문항을 풀어보자.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개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올고 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
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어니젠가: 어느 사이엔가.
*싹기도: 싹기도.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가제: 갓. 방금.
*수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썸인

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톱과 덩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 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한때 빛 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고 그랬다는데요 흔적이거나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 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것은, ㉣똥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선우, 「신(神)의 방」—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나)에서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022학년도 개정 수능 국어 ‘문학’은 어떻게 분석할까?’

문제를 풀어 보았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2학년도 예시문항 각 지문 및 문항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 전에 먼저 알려줄게 있어. 2022학년도 예시문항은 전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어. 이렇듯 2022학년도 예시문항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강하게 연관되었거나, 눈여겨볼 만한 새로운 유형 또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형광펜 처리를 해 두었어. 이 부분들을 참고하면 새로워진 수능 문학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면 보라색 부분은 중요하니까 주의해서 보면 돼~!

수능 국어 문학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원 시험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학 개념어에 대한 지식을 쌓고, 선지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해! 다음의 예시문항 분석에서 문학 개념어가 등장하면 ‘기름잡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도록 해. 그리고 문학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필요한 능력은 사실적 내용을 확인하는 능력과 진술의 적절성에 대한 허용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능력이야.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선지의 진술을 각각 ‘쇠막대기’와 ‘용수철’에 비유할 수 있어. 지문이나 <보기>에 있는 사실적 내용을 찾아서 바로 판단이 가능한 진술은 고정된 ‘쇠막대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고, 근거를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진술은 특정 지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용수철’에 해당하는데, 이는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어. 그런데 학생 수준에서 모든 선지를 ‘쇠막대기’와 ‘용수철’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번 파트에서는 정답 선지에 ‘쇠막대기’와 ‘용수철’을 구분해서 설명해 줄 텐데, 이는 수능 국어 문학 선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선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는 없어. 다만,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할 때에는 정답 선지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찾아 보는 훈련을 하게 될 거야. 그때 자연스럽게 ‘용수철’과 ‘쇠막대기’에 대해 이해하게 될 테니, 문학 선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근거를 찾아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럼 지금부터는 2022학년도 예시문항을 통해 ‘문학’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알아보자!

현대시 두 작품을 (가)와 (나)로 제시했어. 기존 시험의 지문 구성과 큰 차이는 없지만, 문학 작품의 갈래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가)와 (나)는 각기 다른 현대시의 하위 양식에 해당하는 작품이 출제되었어. 이처럼 2022학년도 예시문항에서는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문제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참고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역 문학,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 등을 탐구하는 성취 기준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지역성, 민족성, 전통성과 관련된 다양한 양태의 문학 작품이 지문에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끌어 버린다(1-④)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끌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2-②)

나는 가슴이 찢어진다

나는 또 큰 거미를 끌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2-②)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찢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1-④)

내 손에 오르기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올고 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어니젠가: 어느 사이엔가.

*찢기도: 삭기도.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가제: 갓. 방금.

*수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이런 돼지가 살았지요(1-④)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1-④)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지요. 인간의 배변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1-④)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똥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1-④)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 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1-④)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3-③) 이 아니었는지 몰라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1-④)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 흔적이거나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 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것은, ㉣똥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선우, 「신(神)의 방」-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나)에서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1번은 (가)와 (나) 두 작품에 쓰인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항이야. 표현상·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는 기존의 시험에서도 항상 출제되어 오던 유형에 해당해. 선지에서 언급한 문학 개념어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야. 문학 선지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어에 대해 학습할 때에는 실제 기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정의와 정오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하자!

1. ④

✔ 정답풀이

(가)에서는 ‘방바닥에 나린’ 거미를 보고 이를 ‘문 밖으로 쓸어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화자가 그러한 상황에 따른 자신의 심리와 생각을 마치 혼잣말을 하는 듯한 독백적 어조를 활용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살았대지요’, ‘즐거워했다는군요’와 같이 불특정한 청자에게 ‘통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대화적 어조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가)와 (나)에서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가)의 ‘차디찬 밤’에서 ‘차디찬’은 촉각적 이미지에 해당하지만, ‘밤’은 시각적 이미지라기보다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에 해당하므로,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의 ‘반들 거리는 검은 달’에서 ‘반들거리다’를 촉각적 이미지로 본다면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 ② (가)와 (나)에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거미’와 ‘통시’라는 소재와 대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가)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렸던 화자가 이후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나타난 ‘큰 거미’를 보고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하는 등의 모습에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인 거미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통시’의 가치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 화자가 어떠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기틀잡기

- **공감각**: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현상.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져 표현되며, 이를 ‘감각의 전이’라고도 함.
- **반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화하는 것.
- **대립**: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 **독백적 어조**: 화자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식의 말투.
- **대화적 어조**: 화자가 대상과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말투.

이상적인 현대시 지문 독해를 위한 3 STEP 훈련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지문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은 갈래별로 지문에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 풀이를 위한 현대시 읽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요소를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STEP 1 '화자'와 '대상'을 찾아 형광펜을 치며 문제를 풀어 보세요.

스스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 보세요. 두 가지 색의 형광펜과, 펜을 준비하고 다음의 요소를 찾아 체크하며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우선 '화자', '대상'을 찾아 보세요.

화자는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혹은 '우리'라는 말이 나타나면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한 것이고, 그런 말이 없다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화자가 숨어 있는 경우에도 화자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화자를 확인했다면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을 확인합니다. 어떤 자연물에 주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STEP 1**에서는 먼저 표면에 나타난 '화자'와 '대상'만 찾아 형광펜을 치며 문제를 풀어 봅니다.

STEP 2 '화자'와 '대상'을 확인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며 지문을 다시 읽어 보세요.

화자와 대상을 파악했다면, 화자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제 시적 상황을 파악합니다. 화자와 대상을 파악하고, 화자가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현대시를 읽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품 중간중간 정리한 '시적 상황' 중 빈칸은 '화자'나 '대상', 또는 특정 장소, 행위, 정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지문을 다시 읽을 때에는 **STEP 1**에서 체크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빈칸은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바로 채워 보세요.

STEP 3 해설지를 펴고 **STEP 1**과 **STEP 2**의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이때에는 단순히 정답과 빈칸을 맞힌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지문 독해에 있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빈칸을 채우지 못했거나 잘못 채운 내용이 있는 학생들은 문학 지문에서도 사실 관계를 꼼꼼히 따져 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설을 보고 자신의 문제 풀이 사고 과정과 비교해 보세요. 문학 문제도 선지 판단의 기준은 시험지 안에 있습니다. 지문이나 <보기>에서 선지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문 독해를 위한 3 STEP 훈련은 실전에서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STEP 1 '화자'와 '대상'을 찾아 형광펜을 치고, 평론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문제를 풀어 보세요.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밝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나)

한 줄의 시(詩)는 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잣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건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으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이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STEP 2

‘화자’와 ‘대상’을 확인하고, 평론의 밑줄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채우며 지문을 다시 읽어 보세요.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선달(십이월) 보름 강이 짹짹 얼 정도로 추운 겨울 _____에 ‘나’가 부른 _____는 강을 건너 갔어.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나’의 노래는 강을 건너고 하늘 끝에 _____까지 날아서 갔네.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나’의 노래는 못 잇을 _____에게 간 것이구나. 그러나 노래는 지치면 _____

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네.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_____으로 덮힌 현실을 슬퍼하며 _____이 조상(위문)을 오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뎌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밤은 _____을 아름답게 짜내고, ‘나’의 노래는 한 가락은 여기 두었고 나머지 한 가락은

그 밤(선달 보름)에 _____을 건너 갔지.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화자와 대상의 관계	밤에 자신의 _____가 _____을 건너간 일을 떠올리는 ‘나’
---------------	---

(나)

한 줄의 시(詩)는 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는 _____나 소설을 모르고 살았지만 _____과 지위를 얻으며 행복하게 살다 죽었어.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墓碑銘)을 여기에 썼다

유명한 문인도 그를 기리는 _____을 썼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_____와 _____이 지향해야 할 가치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함을 역설하고 있어.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화자와 대상의 관계	_____을 통해 _____마저 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세상을 _____으로 바라보는 사람
---------------	--

(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시에서 _____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

[A]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시에서 반영은 _____와 _____의 상황을 _____그대로 담아내거나,

화자가 _____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군!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반영의 대상이 _____나 _____이 될 경우, 시는 시론이나 시인론의 성격을 갖게 되겠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시인은 반영을 통해 인간이 _____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구나.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STEP 3 해설지를 펴고 STEP 1 과 STEP 2 의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선달(십이월) 보름 강이 짹짹 얼 정도로 추운 겨울 밤에 '나'가 부른 노래는 강을 건너 갔어.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나'의 노래는 강을 건너고 하늘 끝에 사막까지 날아서 갔네.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나'의 노래는 못 잇을 계집애에게 간 것이구나. 그러나 노래는 지치면 모래불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네.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사막으로 덮힌 현실을 슬퍼하며 별들이 조상(위문)을 오네.

㉤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뎌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밤은 옛일을 아름답게 짜내고, '나'의 노래는 한 가락은 여기 두었고 나머지 한 가락은 그 밤(선달 보름)에 강을 건너 갔지.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화자와 대상의
관계

밤에 자신의 노래가 강을 건너간 일을 떠올리는 '나'

(나)

한 줄의 시(詩)는 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는 시나 소설을 모르고 살았지만 돈과 지위를 얻으며 행복하게 살다 죽었어.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유명한 문인도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썼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나

역사와 시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함을 역설하고 있어.

-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화자와 대상의
관계묘비명을 통해 시인마저 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다)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시에서 반영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

[A]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시에서 반영은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담아내거나, 화자가 지향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군!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반영의 대상이 시나 시인이 될 경우, 시는 시론이나 시인론의 성격을 갖게 되겠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시인은 반영을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드러내는구나.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이상적인 선지 판단을 위한 3 STEP 훈련

수능 국어에서는 지문에서 써 준 만큼만 묻습니다. 따라서 선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신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 '지문에서 눈으로 확인한 것'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문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지문과 선지를 연결하여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곧 기출 분석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를 N회차 반복함으로써 단순히 정답의 근거를 찾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넘어서 평가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문과 선지를 연결 짓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구성하는지, 지문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를 꿰뚫어볼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안내된 STEP 1~STEP 3의 단계를 거치며 선지를 판단할 때의 이상적인 사고 과정을 익혀보세요.

STEP 1 시간 제한 풀기

1. 오늘 분석하고자 하는 「홀수 국어 기출 훈련도구」를 편 후, 기출 분석 노트에서 '문제 페이지'와 '출제 시험명', '지문 제목'을 확인하고 해당 지문의 '분석 날짜'를 적습니다.
2. 주어진 '목표 시간'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선택한 답'에 자신이 고른 답을 체크합니다. 이때 찍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목표 시간' 내에 풀고, '시간 안에 풀었으나 확신 없이 푼 문제'와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제'는 따로 표시해 둡니다.
3. STEP 1에서 문제를 푸는 데 걸린 '소요 시간'을 적습니다. ※ 이때 절대! 채점을 하거나 해설을 보지 않습니다.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1.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문제를 풀며 정답을 고릅니다.
2. '선지 분석'에 자신이 찾은 근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분석 내용을 적습니다. 도저히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은 따로 표시해 둡니다. ※ 이때에도 절대! 채점을 하거나 해설을 보지 않습니다.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1. STEP 1과 STEP 2에서 '내가 선택한 답'과 '정답'을 비교하여 '정답 여부'를 표시합니다.
2. 정답과 해설을 참고하여 STEP 1과 STEP 2에서 확인한 자신의 문제점을 '진단 결과'에 적고, 이에 따라 앞으로 학습해야 하거나 기억해야 할 것들을 '보완할 점'에 적습니다.

STEP 1 정답 여부	STEP 2 정답 여부	진단 결과
X	X	필수 개념이나 지문에 대한 '이해 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풀었을 것입니다.
X	O	'시간'에 쫓겨 비논리적인 사고가 나타난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하며 긴장된 상황에서도 차근차근 푸는 훈련을 해 나가세요.
O	X	시간 제한을 두고 풀었을 때 맞았으나 오히려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풀었을 때 틀린 경우, 자신의 '사고 과정'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에 비약이 없었는지, 이상한 근거를 끌어오는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N회독

N회독을 할 때는 3 STEP 훈련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기나 학습 상황에 따라 훈련 단계를 조절하여 공부합니다.

1~2회독(1학기)	① 지문의 핵심 요소 및 구조 완벽하게 분석 ② 모든 선지의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 ③ STEP 1~STEP 3의 과정 빠짐없이 시행
3회독 이상(2학기)	① 지문은 흐름 중심으로 분석 ② 선지는 정답 중심으로 근거 확인 ③ STEP 2~STEP 3 중심으로 시행
수능 D-30	① 최근 3년간 수능 기출 지문 반복 ② N회독을 하며 '보완할 점'에 정리해두었던 내용 재확인

지금부터 홀수 국어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하여 2021학년도 수능 국어 문학 지문을 분석해 봅시다.

지문을 읽고 STEP 1 '시간 제한 풀기'를 한 후, 다시 지문을 활용해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를 해 보세요. 이후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고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에서 자신의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을 파악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문에 대해서는 '기출 분석 노트 예시'가 제공되니, 이를 자신이 작성한 것과 비교하며 홀수 국어 기출 분석 노트의 구체적인 활용법을 익혀보세요.

★ 두 번째 지문부터는 스스로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해 분석하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 「홀수 국어 기출 훈련도구」의 기출 분석 실전(DAY 2~DAY 6)에 수록된 기출 문제를 '홀수 국어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세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나)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가름쟁이 사래 긴 우리 밭 그 건너의 논실 이센 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탕자 울타리가 쳐진.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 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수수알이 ㉠팡팡 여우는 가을이었을까

깨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아랫넷가 굽이치던 물길에 옆구리를 들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허리 굽은 논실덱과 그의 딸 영자 영숙이 순임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넷가에 소고뼉을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썩썩 썩썩 무엇이 물살을 헤집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아, ㉢청청히 푸르던 하늘

갑자기 무심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 오르면

들꽃 싸아한 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덱의 목소리와

㉣까르르 까르르 밭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 영숙이 순임이의 청량한 웃음소리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 들이 ㉤또랑또랑 익는 냄새며

잔돌에 호미 달그락거리는 소리 들었다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 이시영, 「마음의 고향2 - 그 언덕」 -

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는가’를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조성되는 긴장감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잠을’ 깬 자신에게 ‘어찌자고’라는 의문을 던져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 ㉠~㉤의 의미를 고려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하고 있군.
- ② ㉡을 활용하여 넷가에서 놀던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 ③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에게 순간적 감동을 느끼게 한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을 활용하여 무심증에 언덕을 달려 오른 유년의 화자에게 또렷하게 인식된 이웃들의 밝은 웃음을 부각하고 있군.
- ⑤ ㉤을 활용하여 유년의 화자가 곡식이 익어 가는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지각한 경험을 부각하고 있군.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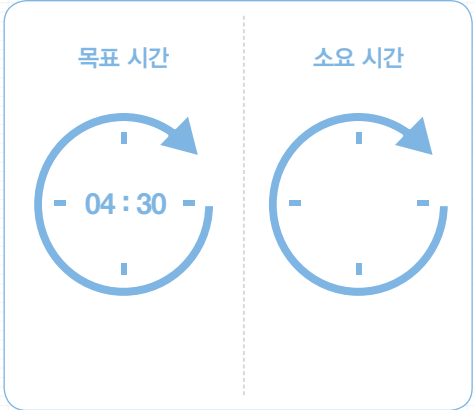
이용악과 이시영의 시 세계에서 고향은 창작의 원천이 되는 공간이다. 이용악의 시에서 고향은 척박한 국경 지역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가)에서는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으로 구체화된다. 이시영의 시에서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나)에서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으로 구체화된다.

- ① (가)는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나)는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험한 벼랑’ 너머 ‘산 사이’라는 위치를 통해 산촌 마을인 고향의 궁벽함을, (나)는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을 통해 농촌 마을인 고향의 평화로움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나)는 ‘발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떠올림으로써 고향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웃에 대한 기억을 보여 준다.
- ④ (가)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나)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뜻함을, (나)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낸다.

분석 날짜	년 월 일	문제 페이지	P. 98	출제 시험명	2021학년도 수능
지문 제목	문학 이용악, 「그리움」 / 이시영, 「마음의 고향2 - 그 언덕」				

STEP 1 시간 제한 풀기

문제	내가 선택한 답	시간 안에 풀었으나 확신 없이 푼 문제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제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문제	선지	선지 분석	근거 못 찾은 것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 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반응] 집에 도착한 첫 순간, 모든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나'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땀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반응] 전쟁의 긴장감이 남아 있는 자신과는 달리 태평하게 돌아가는 일상에 허무감을 느끼는 '나'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앓아 갔던 아틀리에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반응] 일상으로 돌아온 후 극도의 무력감과 짜증스러움을 느끼는 '나'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욕망]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내면의 긴장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하는 '나'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장면 묘기 01 '나'는 전쟁터에서 돌아와 삶에 대한 허무감과 무력감에 빠짐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지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묵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반응] 전쟁의 위험한 상황에서 극도로 긴장하여 극대화된 감각을 체험하는 '나'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윈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쓷은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반응] 이동하는 도중 적에게 발견될까 두려움을 느끼는 한병장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 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반응] 전쟁의 긴장감으로 인해 모든 감각이 생생해지는 상황에 웃음이 나는 '나'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니까, 제대가?" "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반응] 전쟁터에서 생동하는 감각을 느끼며 놀라워하는 '나'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염이 사정 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장면 묘기 02 '나'는 며칠전 나미에게 전쟁에서 겪은 죽음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던 일을 회상함

(중략)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은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려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욕망] 무려한 자신과는 달리 무언가에 열중하는 노인의 모습이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 느끼며 사실을 파악하려는 '나' 노인이 찾고 있는 ㉡ 물건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고자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뉘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욕망] 노인이 찾는 물건의 정체와 숙연한 태도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은 '나'

1.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풀이

- ②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A]는 '나'가 전쟁 중에 겪었던 이야기를 나미에게 들려주는 부분으로, '~말했어.', '~엔진이 고장났지.', '~동이 트더군.' 등과 같이 구어체를 활용하여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B]는 '나'가 창밖의 노인을 관찰하는 부분으로,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등에서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나'가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A]는 전쟁 중에 '나'가 겪었던 사건을 회상한 장면을 삽입하였고, [B]는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A]와 [B] 모두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A]는 T를 떠나 D 고지로 물을 실어다 주러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나, [B]는 공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A]와 [B] 모두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A]는 '나'와 한병장의 대화가 삽입되어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이나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또한 [B]는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 노인과 개가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⑤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A]는 중심인물인 '나'의 말을 제시하고 있으나,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기름잡기

- ① **회상**: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② **구어체**: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주로 쓰는 말투.
 ④ **갈등의 해소**: 갈등을 일으키던 요인이 해결된 상태. 반드시 행복한 결말만을 말하지는 않으며, 어느 한쪽의 승리 혹은 비극적인 결말 또한 갈등의 해소라 할 수 있음.

2.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풀이

- ①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나미'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나'는 전선에서 '집에 도착한' 이후 일상의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받고,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마음 없이 '나날이 권태'와 '짜증스러움'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를 통해 '나'가 '머칠 전 다방에서' 나미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② '나'는 D 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 연대'에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으로, D 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을 겪고 있지는 않다.
- ③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 '나'는 '○○ 연대'에 '물을 실어다 주'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나 '몇 시간 지체하'게 된다. 이로 인해 D 고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동이 트'자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을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일 뿐, '나'와 한병장이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에게 발견되어 공격을 받지는 않았다.
- ④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귀환 후의 꿈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한병장으로, 그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것임을 '나'에게 말하고 있다.
- 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낀다. '나'는 자신의 '긴장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으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며 '무의미하고 태평스러'운 일상에 권태를 느끼고 있다.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 정답 확인

문제	정답	STEP 1		STEP 2	
		내가 선택한 답	정답 여부	내가 선택한 답	정답 여부
1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 △ ×
2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 △ ×
3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 △ ×
4		① ② ③ ④ ⑤	○ △ ×	① ② ③ ④ ⑤	○ △ ×

○ : 근거도 명확히 찾고, 정답도 맞힘 △ :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답은 맞힘 × :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정답도 틀림

● 문제점 진단 및 보완

문제	진단 결과	보완할 점
1		
2		
3		
4		